

北 IRBM 도발 대응...동해로 쏜 현무 미사일 강릉에 추락

한미, 지대지 미사일 4발 발사...핵 추진 항공모함 레이건호 전개 미사일 낙탄 사고...불꽃·소음·섬광에 강원도 주민들 밤새 불안

한미 군 당국은 5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대응해 동해상으로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을 했다고 합동참모본부 밝혔다.

이번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에서 우리 군과 주한미군은 에이태컴스(ATACMS) 2발씩 모두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해 가상표적을 정밀타격했다.

이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전력의 대응 능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합참은 설명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발사한 미사일이 비정상적 비행이후 인근 기지 내로 떨어졌다.

미사일 사격에는 한국군 현무-2C(사거리 1000km)와 에이태컴스(ATACMS·사거리 3000km) 2발, 주한미군의 에이태컴스 2발 등이 동원됐다. 먼저 한국군의 현무-2C를 사격하고 이어 나머지를 순차적으로 발사하는 계획이었다. 전날 심야 시간에 현무-2C 1발을 발사했으나 발사 직후 비정상적으로 비행하다가 인근 기지 내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군은 사고 이후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하고 새벽 1시께 에이태컴스를 사격했다.

이 사고로 강한 불꽃과 소음·섬광으로 인해 기지 인근 등의 강릉 지역 주민들이 놀라 소방서와 경찰서 등에 문의 전화를 많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북한이 어떠한 장소에서 도발하더라도 상시 감시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도발 원점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상시 압도적인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우리 군과 미군의 북한 미사일 도발 대응 사격은 이번이 4번째다. 한미는 3월, 5월, 6월에 대응 사격으로 타격용 14발(한측 12발, 미측 2

발)을 쏘았다.

한편 이날 새벽 1시께 실시한 연합 대응 사격에서 군은 ‘현무-2’ 탄도미사일도 발사했으나 발사 직후 비정상 비행 후 기지 내로 낙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군은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미 연합훈련을 마치고 한국 해역을 떠났던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10만3000t급)가 북한의 IRBM 도발에 따라 5일 동해 공해상으로 다시 전개할 예정이라고 합동참모본부 밝혔다.

레이건호 항모강습단의 한반도 재출동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동맹의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한미동맹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참은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한미 정상회의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미국 전략자산 전개 합의에 따라 전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 후 한미 국방장관의 협의로 결정됐다.

합참은 “한미동맹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간 긴밀한 공조·아래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레이건호 항모강습단은 지난달 25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해 26일부터 나흘간 한미 연합 해상훈련을 벌였으며 이어 동해 공해에서 한미일 3국 연합 대잠전 훈련을 펼쳤다.

10만3천t급의 레이건호는 2003년 취역해 F/A-18 슈퍼호넷 전투기, E-2D 호크아이 조기경보기,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를 비롯한 각종 항공기 약 90대를 탑재하고 승조원 약 5천명이 탑승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린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4일 저녁 우리 군이 발사한 ‘현무-2’ 탄도미사일이 비정상 비행 후 강릉 공군기지 내 떨어진 사고와 관련, 밤사이 불길과 함께 큰 폭발음이 여러 차례 들렸다. 군은 연합 대응 사격에서 ‘현무-2’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발사 직후 비정상 비행 후 기지 내로 낙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상현씨 제공.>

홍준표 “대북 핵전략 전면 재검토해야 할 시점”

지난 대선 경선서 핵공유 공약

홍준표 대구시장은 5일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 관련, “대북 핵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과연 북이 고도화된 핵전력으로 미 본토 공격과 일본 본토 공격을 천명하고 우리를 핵공격한다면 그때도 미국, 일본의 확장억제 전략이 우리의 안전보장을 위해 북을 핵으로 공격할 수 있을까”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홍 시장은 과거 세계 3위의 핵탄두 보유국이던 우크라이나가 미국, 영국, 러시아의 안전보장을 약속받고 핵무장을 해제한 점을 거론한 뒤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은 안전보장을 약속한 러시아의 침략과 핵공격 위협에 직면해 있고, 이를 방어해줘야 할 미

·영은 러시아의 핵위협에 속수무책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핵전쟁 위협사태는 앞으로 세계 비핵화 전망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수밖에 없는 사태일 뿐 아니라 한반도 북한 핵전력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향을 다시 정해야 하는 기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국가 안보는 입으로만 외치는 평화가 아니고 철저히 군사 균형을 통한 무장 평화”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한미 양자 또는 다자(한·미·일·호주) 형태의 ‘아시아 핵 기동그룹’을 설치,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한 나토식 핵 공유 체제 구축 약속을 받아내겠다는 외교안보 공약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스마트팜 찾아 청년 농업인들 격려

경북 상주서 비상경제민생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북 상주의 첨단농업 인프라인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농업 현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도약을 위한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을 보고받았다.

이어 청년 농업인, 농업인 단체대표, 기업인 등과 함께 청년 농업인 육성, 스마트 농업 확산, 농가경영 안정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을 방문, 청년 농업인들이 재배하는 딸기·방울토마토 온실을 둘러봤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활용한 환경제어시스템을 직접 조작해 보며 청년농들을 격려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에서 전했다.

회의 이후엔 인근의 쌀 수확 현장을 찾아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쌀 산업 현황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한편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농업 인프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조성한다. 현재 상주와 김제, 밀양, 고창 4곳에 소재해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기업감세 공방...“세계적 추세” vs “대기업 편향”

기재위 국감 여야 충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5일 기획재정부 국감장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편안을 놓고 여야가 각각 ‘세계적 추세’와 ‘대기업 편향’ 주장으로 맞섰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중소·중견기업에는 일정 과세표준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법인세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하 경향을 하고 있다”며 “외국인 유치, 투자 확대 등을 도모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높은 세 부담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투자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데 반해 국내 투자는

답보상태”라고 지적했다.

윤영석 의원은 “해외에 있는 수출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매력은 분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안 되는지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세계 지원에 관한 부분은 기업의 어떤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약 80개 초대기업이 4조1000억원을 감세를 받지만 10만 개에 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감세액은 다 모아 봤자 2조 4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초대기업 편향 세제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주영 의원도 “이번(법인세) 인하로 혜택을 보는 기업은 역시 상위 0.01%”라면서 “기업들은 수익을 많이 내는데도 불구하고 사내 유보금을 많이 쌓아놓고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THE 12TH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제12회 세계인권도시포럼

기후위기와 인권 CLIMATE CRISIS AND HUMAN RIGHTS



2022.10.10.(월)-10.13.(목) 김대중컨벤션센터



WWW.WHRCF.ORG